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1호 [루게 제25089호] 주제 104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주제적인 군사교육사상과 이론을 창시하시고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정도로 혁명무력강화발전의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경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이 러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참가자들은 혁명무력건설사에 특기할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를 마련해주시었으며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주제 군사교육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새 세기 군사교육혁명의 불길을 지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감사분을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성스러운 혁명의 높은 교단에서 군사인 재육성의 부리, 밑거름이 되어 백두산 혁명강군의 질적강화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대회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군사교육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군사교육의 질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더 훌륭히 키워냄으로써 선군혁명의 주력군이던 기동인 백두산혁명강군의 불멸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 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러쳐 오르고 《김정은 걸사옹위》구호의 함성이 주체의 최고성지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께서 군사교육일군들이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제전법,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모든 학생들을 야전형의 지휘성원, 최정에혁명강군의 맹장들로 키우는 데서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파업을 높이 받들고 군사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믿음직한 군사지휘관, 정치일군들을 더 많이,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로씨야, 중국인사가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 브네슈스 드로이임보르드주식회사 총사장과 중국 동방국문문화예술연구원 원장인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선물을 로씨야 브네슈스 드로이임보르드주식회사 총사장 배. 웨. 갈리닌과 중국 동방국문문화예술연구원 원장 진철이

10월 15일과 11월 2일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의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의 중요한 이정표

### 스위스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를 지지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10월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제105(2016)년 5월초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역사적인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사상과 명도의 유일성,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옹호고수하였으며 지난 70년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을 존엄높은 자주적인민으로 키웠다.

또한 세계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 앞에는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그 명도적 역할을 높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는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진다.

대회는 조선을 세계사회의주의의 등대로 더욱 빛나게 할것이다.

또한 세계사회의주의의 재건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서를 감속속에 접한 우리는 조선로동당에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조선의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될것이며 조선인민에게 보다 휘황찬란한 앞길을 밝혀줄것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영원한 영광을 드린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 제46차 예술인체육대회 진행

제46차 예술인체육대회가 6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영화예술, 무대예술, 예술교육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육상, 마술경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경기장은 당의 대중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꾸준히 연마하여온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우승할 열의에 넘친 참가자들로 흥성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박순남동화상, 안동훈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 교원, 학생들이 경기를 보았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망적성공과 맞이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참가자들의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으로 하여 체육대회는 시작부터 활기를 띠었다.

선수들은 경기마다에서 예술 창조활동의 나날에 익혀온 체육 기술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잘 보여주었다.

아슬아슬한 득점장면들과 선수들의 제지있는 동작들이 펼쳐지는 구기종목경기도 볼만 하였지만 국방체육과 씨름을 비롯한 민족체육경기도는 더욱더 이채로웠다.

자기 팀의 승리를 위해 뛰고 또 뛰는 선수들 못지 않게 관람자들도 열기띤 응원으로 선수들을 더욱 고무해주었다.

장내를 들렀다놓은 마술경기, 승승장구, 체육대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경기에서 출전한 무대예술부문과 예술교육부문의 선수들은 완강한 의지와 인내력으로 집단의 단결된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선수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합성을 올리는 편향자들의 응원으로 경기장은 새처럼 끓어번지

었다.

기세를 몰고 승부를 겨룬 두 팀간의 경기에서는 무대예술 부문팀이 이겼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무대 예술부문이 종합 1등을 쟁취하였다.

제46차 예술인체육대회는 당의 주제적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목으로 문화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문화예술 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양양된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가 되자

### 과학기술전당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저한 관심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당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6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초급당비서 리철용의 보고에 이어 총장 최정호, 부총장 하정복, 처장 홍순금, 초급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박철혁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라의 중대사를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어머님 갖는 저녁까지 오랜 시간 과학기술전당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불멸의 명도자육을 새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찾아와 마음껏 지식의 탐을 쌓을 수 있는 현대적인 과학기술보급거점이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새 세기 건축물의 표본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이 옹호되고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건축예술의 극치, 상징으로 되는 과학기술전당 건설과정을 통하여 원만근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어나갈데 조국의 더 밝은 매일이 있고 위대한 승리가 있음을 온넉으로 새겨안았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과학기술전당을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위대한 거점으로 본뜬이 꾸리며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관심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앞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용대한 구상과 용지가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정책관철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에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기술전당운영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거점의 주인들답게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하고 실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 피라게 탐구하고 사색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백두산철새위인들의 승고한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옥섬시공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는 사업에 깨끗한 마음을 바치며 하나의 기대, 하나의 설비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사업을 열렬히 받들어어나가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지향한 로망적성공과 맞이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파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 공화국내각에서 제46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리세광선수를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제46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리세광선수를 위하여 6일 육류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영훈체육상, 리종무 조선인민군 장령, 기계체조협회 위원장인 리정 잠업비단공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 선수, 감독들, 가족들이 참가하였다.

김용진내각부총리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어머니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일 일념안고 우리들의 경기전념으로 싸워이겼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기쁨을 드리고 람후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린 리세광선수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리세광선수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할 수 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위에 기어이 주체의 체육강국을 일떠세우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시고 나라의 체육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며 우리 체육인들이 계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날은 빛나는 결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체육인들이 당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배두의 넉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빛내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리세광선수가 답사를 하였다.

그는 온 나라 체육인들의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

우승의 시상대에 올라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지는데 속에 높이 오르는 람후색공화국기를 바라볼 때 우리 체육인들을 체육강국건설의 기수, 돌격대로 내세워주시며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새 힘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어려와 추추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당의 체육강국건설수상을 받들고 혼연강령을 당의 전투명령으로, 혼연강령을 당의 사상관철전, 조국수호의 결전장으로 여기고 맹렬히 혼연함으로써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기상과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파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명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